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북변 라선땅에서 창조된 전화위복의 기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선경마을로 훌륭히 일떠선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돌아보시였다



2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북변땅에서 이룩된 성과는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대한 승리이라고 하시면서 군민대단결보다 강한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이런 힘이 있었기에 자연의 혹독한 전횡도 물리칠수 있었고 전대미문의 피해도 단숨에 가실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라선전역에서 발휘한 인민군군인들의 위훈을 생각하면 가슴이 후터위치고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기념사진을 찍고 가야지 그대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수만명의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무려 1시간 30분동안이나 기다려주시였다.

그리하여 라선땅에서는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어깨성을 쌓은 군인들이 자기를

이 건설한 살림집들을 배경으로 기쁨에 울고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는 세상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숭고한 화폭이 펼쳐졌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군인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며 물욕이 터진듯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타신 버스를 따라섰고 그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전체 군민건설자들과 라선시의 인민

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전화위복의 기적으로 수재민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마련해주시고 온정어린 선물들을 가슴가득 보내주시어 온 나라 인민들과 함께 당창건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도록 해주시고도 마음을 못 놓으시어 또다시 머나먼 북변땅에까지 찾아오시여 거듭 뜨거운 정을 쏟아부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흥모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백옥같은 총정과 의리로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이 세상 끝까지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을 다 바치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선땅에 아로새기신 인민사랑의 자욱은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세세년년 길이 전하여질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